

1교시는 텃밭에서...쑥쑥 크는 아이들 인성

광주·전남교육청 '텃밭 가꾸기'
초·중·고교 생태 학습 효과
직접 기른 채소 급식에 올라
학부모 참여 농작 체험도 인기

광주동성중에선 학생들이 텃밭을 가꾼다. 학생·교사가 함께 키우는 농작물은 상추·토마토·오이·케일·보리·밀 등 다양하다. 함께 땅 흘려 농사를 지으며 협동심도 키울 수 있고 농작물이 자라는 걸 관찰하고 수확하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광주·전남 교육청이 진행하는 '텃밭 가꾸기'는 일선 학교의 인기 '인성'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 해 광주지역 62개 초·중학교 학생·교사들이 '텃밭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14개 초등학교는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 가꾸기에 나섰다 48개 초·중학교는 가로 1.8m, 세로 0.9m, 높이 0.5m 규모의 상자에 흙을 담아 텃밭으로 만들었다.

교육청도 자체 예산과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등을 학교에 지원해주며 프로그램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농사일에 낯선 도심 속 아이들이 농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자연체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한몫을 했다.

풍암초교의 경우 학교 내 유휴지(70㎡)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 올 해 첫 시행하는 만큼 학생 스스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키우도록 하는가 하면, 친환경



감자야 언제 이렇게 자랐니?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는 인성교육과 정서발달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다양한 자연체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은 텃밭 가꾸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농법을 권장하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풍암초 뿐 아니라 대성·봉주·입곡·월산 초교 등 5개 학교가 새로 텃밭 가꾸기 도전을 했다. "올 때마다 쑥쑥 자란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라며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각화초·서석초·송정중앙초·용주초교 등 4개 학교는 벌써 3년째다. 그만큼 텃밭

을 가꾸는 학생·교사 실력도 초보자 티를 벗었다. 송정중앙초교의 가족 텃밭(160㎡)은 신청자가 줄을 이을 정도로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데다, 함께 농작물을 기르며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학교측도 계절별 재배 작물을 안내하

거나 우수 경작 가족을 선발하며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삼정초교 학생들은 모둠별로 직접 재배했던 상추, 콩, 방울토마토, 고추 등 채소가 다 자라서 급식에 나온다는 생각에 들떠 있다. 학생들은 올해 처음 만든 상차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지주대기를 하면서 금방 자라는 식물들에 대한 관심

이 대단하다.

전남교육청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친환경 건강학교'(에코스쿨) 사업의 하나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농촌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성교육 및 정서발달의 효과 등을 감안한 게 두드러진다.

전남교육청의 친환경 건강학교는 이 때문에 생태 텃밭을 조성해 가꾸는 것 뿐 아니라 생태 연못, 학교 숲, 빗물 저류통 등 다양한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LED 조명, 에너지 절약 장치 등 친환경 학교시설 조성 사업도 결집해 진행하고 있다. 학교 호응도 커 지난해 31개교(유·초·중·고·특·3)에서 올해는 50개교가 늘어난 81개교가 관련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해남동초교의 경우 '실천하고 체험으로 만드는 스쿨가든'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00여명의 전교생은 '1학생 1화분' 및 자기 나무를 정해 가꾸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익히고 깨치면서 자연스레 협동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학교는 또 해남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를 분양받아 텃밭에 심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하면, 관찰학습장(토끼장, 조류 관찰학습장) 및 생태 연못을 활용하며 아이들의 체험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신안 아해동초교도 '동트리 공동체의 생명 속삭임'이라는 주제로 상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을 심어 가꾸는 텃밭 교육, 운동장·정원에서 학부모와 함께 별자리를 관찰하는 야영 체험 등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

광주보건대 '매우 우수'

광주보건대가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SCK)' 평가 결과, 계속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 가운데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19개 대학에 포함됐다. 애초 하위 30%에 들어 재진입 평가를 받아야 했던 기독교대·서영대·전남도립대 등 광주·전남 3개 대학도 '보통' 등급을 받아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20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SCK 사업 중간평가 최종 결과'에 따르면 단일산업(I 유형)과 복합산업(II 유형), 프로그램특성화(III 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IV 유형) 분야 등 4개 유형으로 나뉜 진행 평가에서 총 84개교 중 광주보건대 등 전국 19개 대학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조선이공대(단일산업 분야) ▲전남과학대(복합산업 분야) ▲동강대(프로그램 특성화) ▲목포과학대(평생직업교육) 등 4곳은 '우수' 등급으로 계속 지원을 받게 됐다.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은 전문대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교육부 '취업연계 중점대학'

전남대·광주여대, 전남과학대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근로장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연계 중점대학'으로 전남대·광주여대, 전남과학대 등 25개교를 선정했다.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사업은 근로장학생들의 취직 격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53개교가 응모했다.

해당 대학들은 근로장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공자아카데미 나주분원

호남대, 오늘 개원식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원장 장석주)는 21일 오전 11시20분 나주공공도서관 3층에서 분원 개원식을 연다.

공자아카데미 나주분원에서는 나주지역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전에서 길을 읽다'

광주교육청 행사 다채

광주시교육청의 '고전에서 길을 읽다'도 인문학적 감성과 인성을 키우는 데 효과적 독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초·중·고등학생들이 함께 고전 도서를 읽고 경험을 나누면서 조상의 지혜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오는 28일 어등초교에서 진행되는 '옛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중학생들에게는 다음달 14일 신용중에서 '연암 소설을 통해 현대인의 삶이 길 찾기'라는 주제에 맞춰 '허생전', '양반전', '공판자전', '예덕선생전'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10월 20일에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으며 토론한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3일 빛고을고등학교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부대 '나무 한 그루씩 가꾸기' 도전

남부대도 인성 함양을 위해 '마이 드림 트리'로 이름 붙인 '1인 1나무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인 1나무 가꾸기'는 학생들이 캠퍼스 내 자기 나무를 골라 이름을 써 매달고 '보물'심어 가꾸보자는 취지로 학교법인 우암학원 설립자 조용기 학원장이 제안했다.

캠퍼스 내 목련·벚꽃·모과나무 등 한 그루를 자기 나무로 정해 애정, 명언, 시구 등을 달고 친구처럼 대하며 가꾸다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조 학원장 생각이다.

행사에 참석한 양소령(유아교육과 1년)씨는 캠퍼스 내 소나무에 '단 한번도 현실 밖의 일을 상상조차 하지 않은 청춘, 그 청춘은 청춘도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었다. 학교측은 인성 교육 뿐 아니라 학생



남부대 학생들이 '1인 1나무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다. <남부대 제공>

들이 학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신대, 독서·봉사·문화로 채워지는 인성

동신대의 인성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가에서 정평이 나왔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Jump Together 123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실력 뿐 아니라 인성 교육 강화를 목표로 했다. '좋은 인성'을 바탕으로 실용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다.

학교측은 이같은 점을 감안, 프로젝트에 '한 학기당 1가지 목표 달성하기', '한 달 3권 이상 책읽기', '한 달 3가지 이상 문화활동 참여하기' 등 개인별 활동 뿐 아니라 ▲한 달 2번 이상 봉사활동 참여하기 ▲하루 3가지 감사하기 등 일상 속에서 지역민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포함해 소통과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익히고 배려하는데 신경을 썼다.

'하루 3가지 감사하기'의 경우 학생들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수첩식으로



제작해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Together형 인재란 '좋은 인성'의 바탕 위에 '전문 능력'을 갖춘 인재, 실용적 전문성과 합동적 창의성, 도덕적 인성을 함양해 사회 어디서나 화합하며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말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김석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